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chool)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어린이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하나님의 크신 사랑(찬55/새15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우성무 집사 2부/이석희 장로 3부/이성준 장로 4부/최민진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예수께로 가면(편곡 이현철)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사무엘상 3:1-11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1-15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Kyung Chul Park 박경철 목사

등불 앞의 세대

-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2) 행복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말씀 앞에서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 Go Deeper, Go Higher
- *축도 Benediction Rev. Kyung Chul Park 박경철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개고생 Dog Stress



박경철 목사 / Rev. Kyung Chul Park

2주 전, 아내가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쉬움 반 그리고 자유를 조금 누릴 기회를 기대하는 마음 반이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마냥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좀 다른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푸들 강아지 '마루'를 제가 돌봐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배웅하고 난 후부터 마루를 통한 본격적인 '개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은 반드시 산책하면서 볼일을 보게 해야 했을 뿐 아니라, 엄마 같은 아내가 안 보여 불안한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짖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온종일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두어야 하는 것이 미안함과 함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도 한 가지 저에게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생이었지만, 강아지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며 평소에 별로 말이 없는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강아지에게, 힘들었던 오늘 나의 마음과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저리주저리, 너무나 재미있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산책 시간이 사역으로 피곤하기도 할 텐데, 도리어 이 강아지와 산책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저를, 마루는 한 다리를 들고 쉬를 하고 나서 고개를 가우뚱하고는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순간, 개고생이 더 이상 개고생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사람도 아닌 강아지 마루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을 네가 들어주니, 그리고 함께 걸어주니 '고맙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혹시 요즈음, 개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고생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 일로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고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안에는 절대 하나님이 계실리가 없어!' 라는 나의 확신보다는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힘든 상황을 통해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제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전에는 하지 못하던 마음의 이야기를 주님께 모두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은혜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베델의 성도님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My wife went to Korea a couple of weeks ago to take care of some business. Normally I would be half regretful for not going, and half expecting of having free time for myself. This time, there was a different situation waiting at home. I was given a responsibility of taking care of our dog 'Maru', a poodle puppy. Regardless, my wife needed to go Korea. After taking her to airport, my suffering of dog stress through Maru began. Every morning and night, it needed to be taken out to poop. He would bark late into night out of anxiety of missing its mom owner. I began to feel burdened for leaving him alone at home for too long.

However, there was one good transformation that began to take place in me, as I endured this dog stress. As I walked the puppy every morning and night, I found myself talking to the puppy. The dog does not understand me and I'm not much of a talker. The conversation happens in an amusing and serious tone about how my day went and things that were hard on me. Schedule of morning and night walks can be tiring after ministry work. Instead, it brought me a bit of joy. Maru would stop, lift its hind leg to pee, then look at me with curiosity as I babbled on.

At that moment I realized that this dog stress is not really a stress... I felt a bit ashamed to Maru, who is not even a person. I was grateful knowing that I was being listened to about things from my heart that I couldn't talk to others about, and to walk with.

Are you suffering dog stresses lately? Even in that suffering, if you could discover God's intention, I think this suffering can bring benefit. Instead of our own boastful thoughts of 'there is no way God is in this situation!', God is calling us during difficult situation to open our eyes of faith to see that God is in the midst of our difficult situation. We need to know God's intention and desire to hear our difficult stories. Led by His grace, it will be good if we could live our lives of sharing difficult stories from the heart that we couldn't share before. Actually, it will benefit our faith.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박경철 목사

등불 앞의 세대 사무엘상 3:1-11

1. 내가 어린 아이와 같다고 느낄 때는 언제 인가요?

적용하기



2. 사무엘의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황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1-2절)

3. 어린 사무엘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데, 대제사장인 엘리는 세번째 응답에 반응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해하며 전달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4-9절)

4.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 나누어 봅시다. (시119:105)

5. 우리 자녀들과 내가 큐티 해야 하는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어린이 주일 특집

힘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푸르른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반짝반짝 어린 두 눈동자 주
인공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
은 베델 어린이들에게 몇가지의 질문을 하여 그 맑고 순수한 작은 이야
기들을 들으며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귀 기울
여 그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질문:

- 교회학교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이에요?
-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은?
- 전도사님께 하고 싶은 말
-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교회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와나를 하
는 시간이 즐겁고, 이렇게 즐거운 시
간을 가질 수 있게 교회에 데려다주시
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김제이든 (초등부)

게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리고
우리 이정연 전도사님이 너무 예뻐
요!!

김지찬(초등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좋고 크래프트
시간이 행복해요 전도사님이 친절하고 재
미있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를 늘 돌봐주시는 엄마아빠 사랑해요

라유나(초등부)

저는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 못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도사님! 하나
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윤예지(유년부)

교회학교에 오면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좋아
요. 저는 고난주일에 처음 초인했는데 전도사
님의 사랑이 더 가까이 느껴졌어요. 지금도 우
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오랫동안
안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주은(유년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찬양이 너무 즐겁
고 Bible man 이랑 같이 예배 볼 때 즐
거웠어요. 또 전도사님이 선물 많이 주시
고 항상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Skylar Kim(유년부)

교회에 오면 선생님들과 함께 크래프트 하
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선생님고맙습
니다. 사랑해요. 재밌는 말씀 잘 전해주
시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Kayla Suh(K-1)

교회에 가면 이름을 불러주며 잘 왔다고 반겨주
시고 암송도 잘 외워 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성
경 읽기 열심히 했을 때 자랑스럽다고 말해주
시고 축복해 주세요. 저널(Journal) 열심히 해
서 기록하다고, 성경 퀴즈 잘했다고 최고라고 말
해주는 전도사님과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전도사님, 선생님 같은 멋진 사람이
되게요.

김가온(K-1)

저는 전도사님과 little game 할 때와 클
래스에서 선생님과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
지 이야기를 나눌 때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애리(K-1)

어린이 주일 특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베델의 소망부는 5세에서 5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 모두가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날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요한복음 9:3)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는 행사입니다. 소망부 선생님들께서 소망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은 은혜와 축복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도 축복해 주실 귀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 시간 후에는 선생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보

물찾기로 받는 재미있는 시간이 됩니다. 소중하고 사랑스런 소망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정민 전도사(소망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드라마 "The Chosen"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즐겁게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진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 그 장면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과 순수하게 웃으시던 얼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눈이 반짝이는 그 순간, 그리고 교회 밖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저희 베델의 뜰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함께 생각하는 이시간을 통하여 우리베델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작은 선물과 5월 큐티인 책을 증정하게 됩니다. 큐티인 책을 통하여 매일 매일 말씀으로 훈련되는 저희 베델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인 베델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정연 전도사(초등부)



신임 목회자 소개

조태헌 목사



1. 베델교회에 부임하신 소감을 나눠주세요.

고난주간 첫날인 월요일에 미국 땅을 밟고, 고난주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Via Dolorosa'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고, 이어지는 부활절 새 생명 축제는 그야말로 감동의 천국 잔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한 교회, 예배의 감격이 살아 있는 교회, 선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교회, 구원의 기쁨이 있

는 교회! 제가 만난 베델교회의 첫인상입니다. 탁월한 말씀과 따뜻한 공동체가 어우러진 교회와 함께하게 됨이 영광입니다.

2. 목사님의 신앙 배경을 알려주세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인 이모님을 통해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늘 학교-집-교회만 다니는 착한 아이였지만, 말씀과 삶이 분리된 듯한 느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오는 공허함이 늘의 문이었지요. 신학을 마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성도 간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의문점이 풀리면서 목회자로의 소명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3. 목사님의 가정을 소개해주세요.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교사이

던 아내를 만났습니다. 티격태격 4년간 같은 부서를 섬기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난 날, 쿠티 말씀이 유다서 1장 24절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였는데 기쁨 '희'에 세울 '건'으로 희건이라 이름을 지었고, 둘째 딸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진정한 웃음을 얻는 말씀이었는데, 기쁨 '희'에 웃을 '은'으로 희은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4. 베델에서 앞으로의 비전과 각오를 나눠주세요.

베델에 오기 전부터 정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자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청년들까지! 기도해 주시고 세심함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에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사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곧 세지 못한 영혼들...

나의 마음이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힘들어할 때, 지난 2년 동안 연기되었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순례의 길에서 느끼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감동이 여전히 마음 가득 벅차오를 때 시작된 고난주간 특별예배는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십자가로 더 깊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중 즐기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이던 나,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다가 닭이 울 때에야 통곡하던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져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길에서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입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으나 은혜로 택하시어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향한 말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금 마음 깊이 깨달으며 부족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내가 주님께 속함을 보여주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성금요일의 성만찬은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성, 습관적인 회개, 입에서만 맴돌던 진정성 없는 기도, 감동 없이 드리던 예배들로 주님을 수없이 실망시켰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어둠에서 해를 내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예배의 시간은 은혜가 고프고 위로가 필요했던 연약한 저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였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날이 축복이라고 할 만큼 비가 오지 않는 나라이지만, 순례 여행 동안 비와

눈,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아름다운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길을 묵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제게 더욱 가까이 와 주셨던 주님은 갈릴리 바다보다 더 크고 총명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던 고난주간의 예배 시간을 통해 축복한 생명의 단비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생명이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만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임명신 권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배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배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배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유관: 오춘란

사역광고

30일 바이블 클럽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16-17) 종교 개혁 전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있는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의 도움으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오디오 성경, 드라마 성경, 성경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던져 왔던 무수히 많은 질문들에 대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죽음 후의 삶은 존재하는가? 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할까? 왜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나?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인생의 성공일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은 왜 불공평한 걸까?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찾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 범위: 1. 사복음서 통독(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간: 30일(월-금)/1일-4장씩

2. 역사서(1) 통독(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기간: 30일(월-금)/1일-5장씩

▶ 신청 기간: 5월 9일(월)-6월 3일(금)

▶ 신청 방법: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 문의: 최호석 집사 (949)236-0042, life@bkc.org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월) |

5/8: ①부-이여송	②부-이완희	③부-이윤호	④부-김준희
5/15: ①부-이태영	②부-이종교	③부-이 청	④부-나승호
5/22: ①부-정병철	②부-이해원	③부-전승운	④부-오새아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5월) |

5/7: 김현일	5/14: 김호경	5/21: 박관수	5/28: 박기승
----------	-----------	-----------	-----------

강단꽃(5월) |

5/1: 노성애	5/8: 박연자	5/15: 이충경	5/22: 임명신
----------	----------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한우광(한 의사), 간호사-김현옥

다음주 | 의사-오미숙(한 의사), 간호사-김현옥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향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오늘은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저들을 뜨겁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뜻깊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 **수요 예배** 5월부터 드려지는 베델수요예배는 새롭게 부임하신 조태현 목사님께서 큐티의 주제로 한달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는 큐티 나눔시간이 이어져 진행 될 예정이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본당에서 현장예배로 드려지면 저녁 7시 온라인으로 방영됩니다. 예배실황은 저녁 7시에 Youtube로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30일 바이블 클럽 모집**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바이블 클럽을 모집합니다. 셀이 함께 성경통독을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7면 참고)

기간: 5월 9일(월)~6월 3일(금)

신청 방법: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문의: 최호석 집사 (949)236-0042, life@bkc.org

◆ **2022 상반기 베델 셀목자 "셀동산"** 셀식구들을 위해 말씀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셀목자님들을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2022년 상반기 셀목자들의 동산에 초대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나눔, 그리고 교제로 충만할 이번 셀목자 "셀동산"에 모든 셀목자님들은 참석하시어 큰 은혜와 함께 기쁨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5월 14일(토) 오전 7시 30분~오후 1시, Bethel Grace 채플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 **신임 셀목자 교육** 2022년 2회차 신임 셀목자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4주간의 훈련을 통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베델 셀목자로 세워지는 귀한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 5월 1일(주일)~5월 7일(토)

신청문의: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특별 프로그램 "걸어서 베델 속으로"(7회)** 베델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팀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궁금했던 사역의 자리를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영 일시: 5월 5일(목) 오전 10시, Youtube 채널을 통해

◆ **멕시코 일일 선교팀원 모집** 멕시코 일일 선교가 5월 14일(토)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모임 일시/장소: 5월 5일(목), 5월 12일(목) 저녁 7시, 조이채플

문의: 고석민 장로 (714)501-7456, 황기원 집사 (213)210-3215

◆ **니카라과 단기선교팀원 모집** 5월 30일(월)부터 6월 4일(토)까지 니카라과에서 의료, 안경, 사진 등의 사역으로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박지학 집사 (217)390-4107

◆ **2022년 베델 선교 바자회 선교 바자회**가 5월 21일(토) 헵시바 예배 후 진행 될 예정입니다. 상품판매 부스를 운영하실 분이나 물품을 도네이션 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5월 21일(토) 오전 7시~오후 1시 / 교회 코트야드

문의: 김효선 집사 (714)438-9381

◆ **은퇴장로 조찬 모임** 은퇴 장로님들을 위한 조찬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장소: 5월 14일(토) 오전 7시 30분, 유년부실

◆ **어린이 주일의 특별한 선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 되었으니 많은 자녀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베델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말씀과 믿음으로 쉼과 자라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 **교회학교 예배실 장소 변경**

- 유년부 예배실 공사로 인해 초등부 예배실 (Gym)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시간은 동일합니다.
- 유아부 예배실(할렐루야 채플) 공사가 마무리되어 이번 주부터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 **영아부, K-1, 초등부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K-1(3부), 초등부(2,3부) 교사와 TA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오전 9시~10시 30분/(3부 예배)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다음 세대를 위한 영문판 QTin교재 정식 발간을 축하합니다.** 전 세대, 영어권과 한국어권 온 가족이 함께 같은 본문으로 큐티(QT)하고자 하는 베델교회의 열정으로 큐티선교회(QTM)와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여 발간되었습니다.

◆ **교회학교 영어 QTin 5월 교재 판매** 많은 봉사자분들의 헌신이 모여 QTin 5월 영어 번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에 PDF File로 받아보셨던 QTin 영어 교재를 종이 책으로 구매하여 보실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24일(주일)부터 실내카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The Generation in front of the Lamp

1 Samuel 3:1–11

1. When do you feel you are like a little child?

Apply to Life



2. How does the Bible describe the spiritual darkness during the days when the boy Samuel was ministered? (Vv. 1-2)

3. Samuel immediately heard God's calling, but Eli only responded after the third time. Share whether you understand God's calling and deliver it to your children properly. (Vv. 4-9).

4. Share what the word of God means to your life. (Psalm 119:105)

5. Share the reason why we and our children should spend quiet time with God (together).